

# 삼라만상 통신처는 자기 주인공 뿐

19면에서 계속

래서 마음이라는 건 겉질, 모습은 다 망가지자 버지만 자기의 모습 아닌 내면의 근본은 세세생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사는 거죠. 모습을 진화시켜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편리한가, 또 때에 따라서 사람모습으로, 움직여서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고달프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판 계 뭐 있나 하고 좀 보고요.

이런 게 있죠. 도깨비가 말입니다. 비유해서 지금 얘깁니다. 도깨비 장난하는 건 봐서도 보살들의 행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도깨비는 금방 여길 뛰어와서 다 보고 또 판데로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보살은 없어지는 것보다도 개구리를 진화시키는 마음을 졸리면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초에 모습이 가고 오고 전부 그 마음이 진화를 해서 다른 갈로 모습을 가져나오고 하죠. 그런데 역시 같은 모든 마음의 장난이라고 할까. 마음으로서 도량을 이끌어 가는 문제를, 내 몸을 적은 도량이라 해도 됩니다. 큰 도량적인 도량, 도량도 여러 가지 많은 도량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돌아 갈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면 이 도리를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도리를 진

## 일체만법 한곳서 나와

어떤 분들에게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데 왜 못 믿느냐고요. 나를 믿으려면 못 믿고 또 부처님을 믿으려면 못 믿을 수도 있었지만 못 믿는 잘못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데 왜 못 믿느냐고 합니다. 왜 좀 있는 집에서는 잘 차려 놓고 식구가 다 모여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없는 집에서는 밥 한 바가지 김치 한 바가지 갖다 놓고 술잔 몇 개 갖다 놓고 여러 식구가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오손도손 웃고 장난도 치고 합니까? 그것이 팔래야 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이치, 예를 들어서 이 종자는 이 종자대로 저 종자는 저 종자대로 문제를 가지가지 수를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세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승려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켜라 지켜라 하지만 계율이 한 두건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지키니까? 그러나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다면 지킬 것도 없고 안 지키는 것도 없죠. 지킨다는 말이 거기에 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지식만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죠. 선지식이 아니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것

도 아니에요. 얼른 쉽게 말해서 2000년은 가고 새해가 닥쳐왔다 한다면 1년에 속하니가 2000년은 벌써 없어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과거는 돌아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걸음을 걸어봐도 알겠죠. 그래서 현실의 걸음을 걷는데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장자를 진짜로 믿을 수만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모두 못 믿어서 걱정이지. 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이니가 자기를 부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는 자기라고 하는데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항상 같이 돌아가는데 왜 자기를 못 믿느냐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판데다 놓고 빌고 찾으니가 어떤 경우에는 영이 들려서 운동 애쓰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주인공에 한데 합쳐 넣으면 됩니다. 영에다가 영을 만개를 갖다 넣을 그냥 영입니다. 흡수시키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고 하는 원인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것 참 이런 도리를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는 이 공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산에도 거지가 다니느냐고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허허, 그러기도 했지만 하여튼 자기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부도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리도 가도 하나고 저리도 가도 하나고, 하나도 없죠 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냐? 개별적으로 우리 하나하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이 되기 전에 모두 생물이 생겨서 잡아먹고 무섭게 살다가 그제 없애지고 진화가 돼서 사람까지 올라와서 합니까. 사람이 진화를 해서 합니까 부처님같이 그렇게만 될 수 있죠. 이런 세세생생을 두고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고 모습은 없지만,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응신이 돼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예요. 다른 게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입니다. 마음은 한 곳에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살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손이 천이라고 했는데 천이라는 게 숫자를 두고 말한 게 아니죠. 천은 숫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발도 천, 눈도 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인간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전



그림 · 최주현

## 가만 있으면 부모 생각내면 자로 '하나'

## 일체만법 나 아닌 내가 함이 없이 하죠

부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먹고 살 수도 없죠. 지수화풍으로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또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귀찮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똑똑하다고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이 없고요. 안 똑똑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똑똑히 살 뿐이죠.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제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 좀 일으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쓰러트린 게 누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구별없는 구별, 문없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 나 아닌 나 내가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 모습이 전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가,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잘났다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중

문을 먼저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종이 안 될려면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면은 주인도 아니다. 그냥 자유스럽다 하는 겁니다.

## 주장자 있어야 주는 법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무조건 좋게 해서 진짜로 믿거든 닥치는 대로 편리하게 거기 놓고 또 참 자기를 믿으려고. 믿어야 그걸 믿는다고 믿는 다도 없이 그냥 놓게 되죠.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다고 믿는 다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발에 밟히는 가는 곳마다 어떠한 거든지 풀어서 순간 다 하는 거니까요.

어떤 분이 다 망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여길 왔는데 들는 대로 보는 대로 그냥 무조건, 죽었으니 그냥 믿고 공부하다 보니까 일이 그냥 술술 풀리더니 거만 다 풀렸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도 죽었으니가 틀도 없으니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수술 할 돈이 없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병은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면은 도리어 고생만 진탕하고 식구들 고생만 시키고 죽어 죽어 만들어 놓거든요. 이것을 왜 생각들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원통해서요. 죽는 것을 원통해 하지 말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난 여태 그냥 죽을 복도 없나봐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몸을 병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이것 떼어 내고 저것 떼어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쪽은 낫는데 다른 쪽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수술을 해서 나왔는데 또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뻔 돈도 없이 너무 딱한 분들은 백의 마음에 달렸으니가 죽는 거 이렇게도 한번, 저렇게도 한번,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사는 거 뭐 그렇게, 지금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면 어떤 뻔 병원에 안가고 그냥 살다보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아니라 더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죽을 사람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 돌아가시게 됐는데 3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은 방에 풍을 풍간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애가 뼈가 없이 드러누워서 살면서 열아홉 살이 됐는데 부모가 늙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가난은 뭐 말도 못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정말 공짜죠. 요양에 공부 잘해야 하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공짜로 즐려고 그래도 공짜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에너지를 요만큼 가지고 이만큼 나오는 걸 만드는 과학자들 있죠. 그런 거와 같어요. 부처님 법을 진짜로 진심하게 믿고 공부한다면 정말 그렇게 자기 살길을 개척해서 요만큼 밖에 없는 것을 이만큼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어느 부처님이 용하시던 어느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릴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말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있어서 자기가 능

사를 지어서 남도 주고 내가 먹으면서 거침없고 걸림없이 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근본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타인을 믿고 타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타신이나 타인을 믿으란 말을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다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못난 자기의 주장자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장자가 있어야 일체만법도 다 그 주장자를, 주장자 있는 사람에게 주지 주장자가 없는 사람에게 주장자를 주질 않아요. 전에 내가 주장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도 내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으로 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수 없다고요.

## 빛보다도 더 빠른 마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노릇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진실로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때에 올 아니게 잡숫고 괴를 만들고 이 세상의 에너지를 다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일체만법 모두 합장을 하고요.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 한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없으면 그것도 없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본이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상대성이 모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면 나도 편안하겠지만 내 하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세생생 여러분이 진화하는데 걱정이 없을 거고,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벌써 보이지 않는에서 다 돌아오. 온기가 돌 듯이, 길이 돌 듯이, 구름이 돌 듯이, 연기가 돌 듯이 모두 진화하는 머리가 아주 나쁜 글속으로 들어가서 진화를 해도 정말이지 인생을 만드는 공장을 벗어나야겠다 하고 벗어나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번 틀림없이 막대기 하나에다 사랑 하나는 꽃이 드렸는데 어디에 걸림없이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런데... 그렇게 진짜로 믿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편안하게 사실 수 없고 고생하시고 속을 태우시고 그러는데 지금 죽는다면 하더라도 속내까지 마셔요. 지금 금방 죽는다면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느 책에 써 놓은 게 보니까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틀림없었구나. 틀림없이 수룩룩하게 부처님들이 나시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살아야 죽어서도 남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각자 여러분의 나 아닌 나가, 그 속에 참 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잘 사합니다.

※ 위 법문은 2000년 1월 2일 법랑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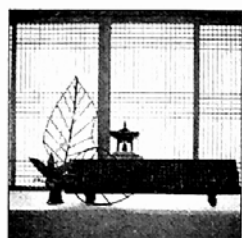
산사의 향기(대·소)



연화의 세계(대·소)



탑이 있는 풍경(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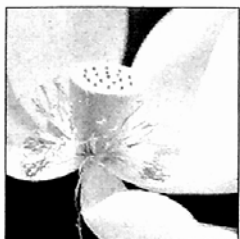
산사의 꽃향기(대)



신비의 달마도(소)



석굴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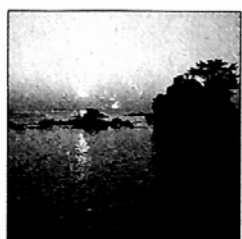
백련(소)



북한의 사찰(소)



선의 세계(소)



금강산의 사계(소)



미니 차질이 달력

8절 대지 마닐라(14매)

종류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흥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강산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학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 사진: 안장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목과 수려한 작품이다  
인공수는 월간 영산 권립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굴, 국립공립, 석굴암, 영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회회원 및 대한 사진예술가협회 자원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대(30×31cm) 6월, 가격: 1,600원  
소(26×26.5cm) 사륙12월, 가격: 1,400원  
■ 매 수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100부 이상  
■ 미니 차질이 달력은 200부 이상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02)723-4306 팩스: (02)738-8682

감로기획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